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윤동주, 「서시」 中

청렴? 나랑 관련 있나? 고위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
문일까? 청렴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대한민국의 다양한 일상이 묘사된
청렴 수기들이 나를 부드럽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아! 청렴에 대해 한없이 좁았
던 시야가 팻 하고 트인 순간이었다.

청렴은 좁게 보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청탁을 막는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상관의 뇌물요구를 거부한 군인의 사례와, 지폐를 주고 앞까지만 태워달라는 시
민의 부탁을 거절한 소방관의 사례는 이러한 청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청렴은 모든 국민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마음의 거울이다.
일상 작은 행동이 부정부패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모두가 자신의 정직
함을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딸기 우유 하나라도 받지 않은 마트 직원과 투
명한 직업의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발행하는 중국어 강사는 작은 일에
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정직함을 잘 보여주었다. 청렴한 사례를 보며 나는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더 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시
처럼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끄러워졌다.

청(淸)-

청렴의 ‘청’ 자가 유독 맑게 울려 퍼진다. 그 섬세하고 고운 소리가 세상을 환
히 비춘다. 청렴은 진솔한 고백이 담긴 사례들을 통해 군부대와 바다부터 마을
의 작은 골목, 마트 안, 가정까지 스며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에
스며든 울림을 고백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울림, 공동체 의식과 청렴은 서로의 든든한 기반.

우리는 ‘인간(人間)’ 이라는 문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함께

하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시민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삼중망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와, 국민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정직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사회를 이루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행동의 유혹을 막는 큰 힘이 된다. 자연스레 청렴은 곧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향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렴을 통해 목적지가 ‘나를 위한 곳’ 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곳’ 인 지도를 펼치고 삶을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울림, 악습의 굴레를 끊은 김영란법.

달력공장에서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우편물을 받고도 끝끝내 반신반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시큰거렸다. 그에게 족쇄처럼 삶을 조여왔던 악습이 한순간에 끊어진다는 것은 기쁨이기 전에 생소함이었다. 부정부패한 악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움아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모습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 악습의 굴레를 끊은 김영란법이 참으로 고마웠다. 이제 달력공장장은 의례적인 선물의 부담으로부터 어깨를 털었고, 다른 수기의 택시기사는 접대문화의 폐지로 불면증까지 나았다. 법을 통해 바뀐 사회의 모습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나 역시 변해야 할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자, 부정부패로 멍든 사회와 개인을 고치는 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뇌하자. 이 마음속의 울림을 간직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울림, 용기는 청렴의 동행자.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준 부하장교의 일화에 나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곧 물밑 듯 떠오르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다.

‘청렴은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용기구나!’

나였다면 수기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소신을 상관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선뜻 예,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렸을 적 나는 평소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선생님께서 부당한 행동을 하시면 서슴없이 말하는 학생이었다. 평소 신뢰하는 학생이 던진 직언인 만큼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누군가에겐 ‘용감한 친구’, 또 누군가에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지금의 나는 그때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핑계로 눈 감아버린 일이 이제 몇이나 될까? ‘어린 시절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작은 나’는 마음 한 곳을 쿡쿡 찔렸다. 그리고 곧 그 부분이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의 통증은 다시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다시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울림, 향기처럼 퍼지는 청렴.

수 가지의 사례 속에서 나의 마음을 깊게 울린 것은 청렴을 깨닫게 해준 ‘조력자’들의 모습이었다. 넥타이 선물을 거절하고 깨달음을 준 교사, 마을 골목길을 한결같이 지키며 청소하신 어머니, 아내 곁에서 청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 남편. 수기의 화자들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청렴을 실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수기들은 독자인 나에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금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진실한 행동은 향기처럼 퍼져 모두에게 닿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국민 한 명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청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용기,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 국민성, 또 청렴을 돕는 법과 깨어있는 국민 공동체가 화음을 이룰 때 청렴은 마음 가득 누리 가득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울림이 청렴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깨달음을, 알면서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따끔한 경보음으로 가슴에 새겨지길 바란다. 또 그 울림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나’가 있음을 모두가 기억하길 바란다.